

## 생활시간의 국제비교

이 기 영 (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동학부 교수)

이 연 숙 (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)

김 외 숙 (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)

조 희 금 (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전공 교수)

윤 미 립 (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)

본 연구는 우리 나라 국민의 생활시간을 선진국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의 특성을 밝히고 국제사회 속에서의 우리 사회의 위상이나 발전 정도를 평가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성, 취업여부, 연령, 요일이 생활시간에 영향을 주는 사실에 주목해서 본 연구는 이들 변수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의 차이를 국제비교하였다.

비교국으로는 일본, 미국, 핀란드를 선정하였으며 분석자료는 각 국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일지법에 의해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, 비교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 하였다.

성인의 생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.

우선 전체 생활시간구조에서 나타난 한국 남성의 시간사용의 특징은,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-특히 통근시간-이 길고 개인유지시간, 자유시간,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이 짧은 것이다. 한국 여성 또한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이 많고 자유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이 적다는 점에서는 한국 남성과 일치되나 가사노동시간이 긴 점에서는 남성과 대조적이다. 특히 한국 여성은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. 생활시간배분의 성별차이를 볼 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핀란드로 대표되는 서구에 비해 남녀간 불평등도가 심하게 나타났다. 동서양의 불평등을 규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가사노동의 성별 차이가 근무시간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연령별 생활시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30대의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취업을 단절하는 전형적인 M자형 수입노동 라이프사이클을 보인다. 취업여부별로는 한국과 일본이 핀란드나 미국보다 취업자간 남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과 일본의 남성취업자는 특별히 가사노동시간은 짧고, 취업노동시간이 길어 생활영역간 부조화가 심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.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는 미국이나 핀란드 등 서구사회가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양에 비해 요일간의 생활시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

앞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국민의 생활양식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. 이를 위해서는 성인 각자의 의식 전환이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노동력정책, 여성정책, 교통정책 등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.